

전주시 에너지정책, 대통령상 수상

‘시민이 만드는 미래, 에너지디자인 3040’,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대상... 상금 500만원 받아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에너지정책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국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2017년 제19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시민이 만드는 미래, 에너지디자인 3040’을 주제로 대통령상(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이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전파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전국의 민관협력 사례를 공모·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전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재 각각 11%와 5.8%에 불과한 전주시 에너지 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에너지디자인 3040’으로 참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계획 수립 전 과정에 시민들이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해 수립된 이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에너지 독립선언을 통해 중앙 집권적인 에너지 정책을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절약과 효



“학폭 가해자 엄중 처벌해 달라”

25일 전주 투신 여중생 관련 학교폭력위원회 재심이 전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숨진 여중생 유가족들이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과 30대 과제를 추진키로 한 것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4월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을 발표하고, 동아시아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에너지 사용주체인 시민들

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선언했다. 시는 또, 에너지거버넌스 운영으로 민관이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분야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에너지안전도시 구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근거 담은 긴급조례도 제정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은 행정과 시민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전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가나자와마라톤에 전주시 선수단 파견

육상연맹 소속 3명... 민간사절 역할도 수행

전주시가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와 활발한 민간 스포츠 교류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오는 29일 일본 가나자와시 ‘2017가나자와마라톤 대회’에 최양열 선수를 단장으로 한 전주시 육상연맹 소속 마라톤 선수단 3명을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 선수단은 가나자와 시청 방문과 가나자와 문화 시찰 등을 통해 민간사절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마라톤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해 개인의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제1회 가나자와와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대회에 참가해 돈독한 민간우호관계를 다져오고 있으며, 전주시 육상연맹의 이번 2017가나자와마라톤 참가도 지난 3월 가나자와시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에 앞서, 가나자와시 마라톤 선수단도 지난 4월 전북에서 열린 새만금 마라톤대회 참가했으며, 당시 전주시를 찾아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등 단순한 스포츠 교류가 아닌 도시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 교류에 힘써오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가나자와시와 국제 자매결연 체결 15주년을 기념해 대표단을 가나자와시에 파견, 양 도시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발전적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양 도시의 교류는 이제 민·관의 경계 없이 창조적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양 도시간 상호 호혜적 우호협력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이북 여동생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이북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사형시켜 달라던 4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이북 여동생 B(3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던 A씨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자 이날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를 말리기 위해 B씨가 나서자 함께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이후 중상을 입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점, 피해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또한 여동생에게 미안하다며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요청했다. /이상민 기자

완산경찰, 테러·재난 대비 청원경찰 특별 복무 점검

완산경찰서는 25일 관내 농촌진흥청 등 관내 청원경찰 배치장소 9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테러 등 각종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매뉴얼에 따른 대응요령 숙지여부 및 무기 탄약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담당자 및 청원경찰 대상 간담회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상민 기자

익산-장수 고속도로 상행선서 고속버스-트럭 추돌 7명 중경상

지난 24일 오후 8시 17분께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상행선 부귀 2터널 인근 도로에서 A(57)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4.5트럭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운전자 A씨가 크게 다치고 승객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미처 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 색장동 덕산마을 버스승강장 안전 강화

도로 본선에서 분리 설치·지하차도서 합류 차량 가속차선 확보 사업 내년 1월 완료

외곽도로에 위치해 있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전주 색장동 덕산마을 버스승강장이 안전해진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전주-남원간 국도 17호선(왕복4차선) 전주방향 2차로에 위치한 색장동 덕산마을 버스승강장을 도로 본선에서 분리해 정착대를 새로 설치하고, 인근 지하차도에서 합류하는 차량을 위한 가속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곳은 현재 별도의 버스 정착대가

없이 시내버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2차선 차도 위에 정착해야 하는 데다, 버스승강장이 인근 지하도에서 국도 17호선으로 합류하는 지점과 근접해 있어 국도로 진입하려는 덕산마을 지하도 통과차량과 버스 승하차 승객 간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버스 이용객과 지하도 통과차량의 안전 확보 위해 버스 승강장을 도로 본선에서 분리해 설치하고, 가속차선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시설 계약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버

스승강장 이설 및 정착대(연장 60m, 폭 6m)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버스 이용객과 차량 간 충분한 이격거리와 국도 진입을 위한 가속차로가 확보돼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착대 설치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버스 타기에 안전하고 교통사고 걱정 없는 도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완산서, 경목회 정기총회 열려

완산경찰서는 25일 오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최인근 완산 경목회장 등 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목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완산경찰의 주요추진업무 및 경찰활동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의 나아갈 방향과 치안문제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경목회 목사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경찰발전을 위해 목사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